

‘기름 폭탄’ 무너지는 민생 ... 현실적 대책 없나

“유류세 추가 인하·탄력세율 적용을”

최근의 유가폭등은 지역기업과 서민, 농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업들은 마른 수건도 쥐어뜯 만큼 비상경영에 마련했고, 서민들도 외식을 줄이고 자가용 운행회수를 줄이는 등 힘겨운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으나 위기감은 고조되는 상황이다.

◇산업계 덮치는 고유가 공포=광주시 하남산단내 A기계 제조업체 대표는 “작업공정에서 유류사용량은 많지 않지만, 물류비용이 지난해보다 35% 더 늘어났다”면서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전기·물 등을 아껴쓰라고 말하기도 지쳤다”고 전했다.

고유가 공포가 산업계를 덮치면서 각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다양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은 운송·물류업계는 연료비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항공기 무게를 줄이는 등 진작부터 비상대책을 시행해온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일부 노선을 감편 또는 중단하는 극약 처방까지 단행했다.

화물연대가 내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물류업계는 “급한 물건을 미리 처리하는 등 비상상황을 맞고 있지만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율스름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같은 물류중단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삼성광주 전자 등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산업계 전체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가 내려져 조식기재 등 대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제조업체들은 물류비 절감에 비상이 걸렸다.

◇자정면 먹기도 겁난다=경유 차량을 운행하며 15년째 운전업에 종사해온 J모(56·광산구)씨는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싸서 1년 전에 비싼 돈을 주고 경유차를 샀는데, 요즘은 경유 값이 휘발유값과 별 차이가 없어 차 몰기가 두렵다”면서 “계다가 택시를 타려는 손님이 줄어 겨우 차량을 지비나 뺄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K모(45·여·북구)씨는 “2주일마다 주유를 하는데 경유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고민”이라며 “가족들끼리 외식 한번 하려고 해도 지갑걱정부터 할 정도”라고 치솟는 기름값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고유가는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유업체도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 광주시 남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모(46)씨는 “기름값 상승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가는 ‘죽을 맛’=면세유(경유 기준)는 5월 현재 1ℓ 당 1천100원대로, 불과 3년만에 2.2배 증가했다.

영농비 가운데 난방비가 30~50%를 차지하는 시설채소·화훼농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기름값을 이제는 계산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나 시설채소나 과채류 농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트랙터 논갈이와 이앙기 값도 지난해 760만(1마지기)에 2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경유값 대책,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세유 3년만에 2배 ↑ 농어가 고사위기

운송·물류업계 등도 초고유가 대책 비상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고, 화학비료는 20kg 1포에 지난해 대비 33.3%나 올라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다.

목포수협은 어업용 면세유 경유값(27일 기준)은 200ℓ 한 드럼이 17만3천8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9천800원보다 74%나 올랐다. 다음달부터는 드럼당 19만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어서 어민들을 더욱 옥죄게 될 전망이다.

목포 안강방 어선 52척 가운데 20%인 10여척이 경유값·인건비 폭등으로 출어를 포기해 고유가로 인한 어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추세다.

◇대책=민주당 등 야당은 유류세 추가 인하, 탄력세율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탄력세율 적용에 대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외면하고 있으나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인세율만 낮추지 않으면 탄력세율 도입에 따른 세수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화물차 등 업계 관계자들도 “보조금 시한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사의 독과점 이익 환원, 국영 정유사 추진 등 유가 정책 틀을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경유값, 휘발유 85%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최근 경유가격 급등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비율을 10대 8.5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도 고유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 세계화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율 목표를 10대 8.5로 조정했으나 최근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휘발유와 경유가격 격전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손 대표는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다는 한가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한가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 경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현재 경유를 많이 쓰는 영업용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이들이 37만 명에 달한다”며 “교통세를 인하고 주정세를 인상해 보조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화물차에 대한 경유(세금)의 환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민주당이 조만간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우도 광우병 관리·예방 강화

‘비정상 소’ 도축 못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광우병 등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씻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뿐 아니라 국내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예방 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비(非)정상소의 도축과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시점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광우병위험소 도축·식용 전면 금지= 우선 정부는 앞으로 소 도축과

무르거나 심하게 붉은 등 심각하고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돌려보내고 있다.

◇하반기중 소에 모든 동물성사료 금지=광우병 관리의 핵심인 동물성사료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 2000년 12월 이후 우리나라는 소 등 반추동물은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난 1998년 이후 실행해온 동물성사료 조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돼지 등을 소의 사료에 섞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광우병 원인체(변형 프리온)의 잠재적 교차 오염을 막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사료관리법과 관련 고시 등을 고쳐 9~10월부터는 어분

9~10월부터 소에 동물성 사료 금지

연내에 광우병 등급 평가 점수 채워

정에서 ‘얇은뺨이 소’(기립불능소: downer)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非)정상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광우병등급 평가 점수 채운다=아울러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관리 등급 판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OIE로부터 ‘무시할만한(negligible) 위험’, ‘통제된(controlled) 위험’ 등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7년간 24만점의 광우병 예방 점수를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만 8천300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감염 여부를 검사했지만, 누락 예방 점수가 아직 9만5천점에 불과한 상태다.

다만 비정상소의 경우 정상소와 구분해 따로 모아 도축하고, 피부가 짓

(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광우병등급 평가 점수 채운다=아울러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위험관리 등급 판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OIE로부터 ‘무시할만한(negligible) 위험’, ‘통제된(controlled) 위험’ 등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7년간 24만점의 광우병 예방 점수를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만 8천300마리의 소에 대해 광우병 감염 여부를 검사했지만, 누락 예방 점수가 아직 9만5천점에 불과한 상태다.

/연합뉴스

“회기 아직 이틀... FTA처리를”

한나라, 민주당에 4자회담 제의

한나라당은 28일 통합민주당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4자 회동’을 갖자고 제의하는 등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한 결단을 민주당이 내려줄 것을 막판까지 호소했다.

강제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손학규 대표가 말로만 야당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 지금 당장 처리하면 된다”며 “마침 민주당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됐으니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넷이 만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공식 제의했다.

강 대표는 “17대 국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민주당이 국익을 위한 결단만 내린다면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며 “민주당이 쇠고기 촛불집회를 구경하고 장외투쟁 카드나 만지작거리는 동안 우리 경제는 시계열로 망들려갈 것이다. 나라를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기회를 놓치고 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왜 이렇게 모르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주)세종투어
062) 222-2209

여행사
여행상품
여행예약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알차고 특별한 6월 여행

강력추천

SEJONG TOUR
TRAVEL AGENCY

HAPPY SUNDAY~제주TOUR!!

1박2일 - 139,000 (매)

1.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2.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3.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부산여행

대천항굴에서 부산은
방골 / 해운대 / 광안리 / 동해안

1박2일 - 599,000 (매)

1.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2.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대천항에서 부산까지

대천항에서 부산까지

Welcome, 1 1박2일 - 369,000

1.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2.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Welcome, 2 1박2일 - 379,000

1.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2.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Welcome, 3 1박2일 - 389,000

1.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2. 부산국제공항에서 부산국제공항까지

100% 싱싱한 제주영유도 TOUR!!

1박2일 - 159,000

1.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2.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세종투어는 건국50주년 기념 특별여행상품을 제공합니다. *세종투어는 건국50주년 기념 특별여행상품을 제공합니다. *세종투어는 건국50주년 기념 특별여행상품을 제공합니다.